



# 명덕누리

Myung Duk Nuri

제3호 <http://mdfh.or.kr/>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34-10 Tel. 02)2665-8818, 8823 발행인 김인중 발행처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편집인 동아리 COMP, 최서희(지도교사) 발행일 10월 5일



##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한 첫 걸음!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키워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자주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지식인,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전문인,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인'은 명덕인을 나타내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은 명덕외고만의 유대감으로 외교 최대 규모의 동문회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학교 브랜드에 걸맞은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중 학생들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 선후배 직속제도, 교내 스포츠 리그를 통해 소속감, 유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선배, 후배, 졸업생들이 이끌어나가는 명덕외고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더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자 고석규(독일어과)



1991. 9 설립인가

1992. 3 제1회 입학식

2015. 2 제21회 졸업식

2015. 3 제24회 입학식

Make Your Dreams Fly High!

인터뷰 Interview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김인종

우리 COMP에서는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2015년 새로 부임하신 김인종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동아리원 모두에게 손수 따뜻한 대추차를 타주시는 선생님은 봄을 참 많이 담은 분이였다.

Q 명덕외고와 학생들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A 우선 학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교우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3학년 교실에서 특강을 할 때, '학교에서 친구 간의 경쟁에 따른 긴장은 있어도 학교가 매우 재미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매우 열정적이라고 느꼈다.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축제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명덕외고 학생들의 또 다른 장점이다.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

고, 환영회 때 1·2·3학년 학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어울려서 하나 되던 모습 등을 인상 깊게 지켜보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다.

Q 선생님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A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조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높은 지적 수준과 품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 국가에 봉사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돕는 것이다.

Q 앞으로 명덕외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 외국 학교들과의 교류 활성화, 학술동아리의 활성화, 다양한 외국어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4월에는 중국의 명문학교인 형수 중학교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

이며, 미국과 유럽 등의 학교와도 교류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A 기숙학교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한 예체능 활동과 동아리활동,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 소외된 이웃에 대한 애정을 지닐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키울 것이다.

Q 명덕외고의 자랑 거리는?

A 첫째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명덕외고의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모두가 사랑과 열정으로 뭉쳐진 교육전문인들이다.

둘째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학생들이다.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와 선배 간의 연대를 통해서 졸업할 때는 더욱 뛰어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있다.

셋째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다. 공연을 비롯하여 체험, 봉사, 학술 관련 동아리 등 6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창업, 투자, 토론 등을 하는 경제동아리들의 활동은 가치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과 학습 이외에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명덕외고의 자랑이다.

기자 최서연(독일어과), 허영현(독일어과)



명덕 자치법정 미래의 판사, 검사, 변호사



교내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무를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인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선생님의 학생 지도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자치법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맡고 있는 중국어과 3학년 박수빈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자치법정 제2기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데요, 자치법정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장래희망이 법조인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내 자치법정 변호사가 되는 것은 매우 뜻깊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또한 벌점이 많은 학생에게 자치법정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일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Q 자치법정에서 변호사로서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의미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복장불량으로 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복장에 관한 교칙의 애매함'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교칙에 대한 학생의 시각을 잘 대변해주었죠. 자치법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자치법정 활동을 통해 얻는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A 교내 자치법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의 법정을 기획해 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모두 함께 고민하며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어서 보람합니다. 또 교내 자치법정을 여는 것 이외에도 가정법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등의 활동들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교내 자치법정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학생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넓게는 법의식 함양과 더불어 진로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기자 범기혁(독일어과), 한주원(중국어과)



학술제

공연 동아리를 위해 "동아리 발표회"가 있다면 학술 동아리를 위해 명덕외고에서는 연초마다 "학술제"가 열린다. 모의유엔(MDMUN), 시사토론 동아리(TESTIS), 영어 토론 동아리(M.BATERS) 등의 토론 동아리들은 자신들의 토론 과정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고, 국제 교류 동아리(GLOBAL), 경영경제동아리(LAISSEZ-FAIRE) 등의 동아리는 지난 1년간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제시하며 관심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학술제에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전공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일년동안 작성한 소논문 발표도 학술제에서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명덕외고 학생들은 학술제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또 관심 분야에 대한 자신의 지난 활동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15년 학술제는 철쭉이 만발하는 5월에 개최된다. 명덕외고 학생들의 지적 성과물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기자 박선우(프랑스어과), 박신영(영독과)



# 세계문화축제

# WELCOME TO M.D.



전통 의상을 입고 그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는 활동이나 국가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퀴즈활동도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올해는 명덕외고 '제 3회 세계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작년 축제는 명덕외고 6개의 과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명덕외고 재학생 및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겼던 축제였다.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이 각 전공어권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더욱 더 풍성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자 범기혁(독일어과), 최서연(프랑스어과)

기다려라!  
제3회 명덕인의  
World Culture Festival

명덕외고의 세계문화축제는 각 과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뜻 깊은 날로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 중 하나이다. 열심히 배운 전공어를 바탕으로 연극을 준비하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놀이, 전통 옷 등을 소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행사들과 달리 세계문화축제는 외부인을 초청할 수 있는 좀 더 개방된 축제라는 것이다. 새로 입학하게 될 후배들과 주위에 있는 여러 외국인을 초청하여 함께할 수 있어서 재학생들만의 축제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이다.

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이다.

2014년 12월 26일, '제2회 세계문화 축제'가 열렸다. 본교에는 6개의 과(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가 있는 만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 중 영불과의 공포체험은 다양한 활동들 중 인기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각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들 중 불어과의 바게트 빵이나 크레페, 일본어과의 타코야키, 독일어과의 무알콜 맥주나 특별히 카레가루를 입힌 소시지 등이 인기가 많았다. 또한 과별로 다른 친구들이 그 나라의



## 축! 자매결연, 중국 최고 명문학교 '형수이(衡水) 중고등학교'



**1일** 첫째 날, 4월 17일 금요일 새벽 6시, 명덕외고 교감선생님과 대표 학생들은 전교생 약 8,000명, 학교 전체 면적이 약 153,000㎡, 학급수만 630여 개에 달하는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형수이(衡水)에 위치한 '형수이 제1중학교'에 방문했다. 학교도 둘러보고 형수이 중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현지의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2일** 둘째 날, 형수이중학교 '远足(웬주)'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렀다. '远足'은 일년에 한 번, 학교에서 출발해서 형수이 강을 돌아 왕복 40km를 걷는 행사이다. 우리는 632반과 633반 사이에서 함께 걸으면서 중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 40km 완주하는 것을 보며 중국 학생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일행은 중국의 일반 가정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며 '가장 중국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헤어질 땐 아쉬워 사진을 찍고 QQ(중국 메신저)번호를 교환할 만큼 짧은 시간에 친해진 시간이었다.



**3일** 셋째 날, 이번 중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자매결연식'이 있었다. 앞으로의 더 많은 교육, 문화적 교류를 약속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자매결연을 맺고 高考(중국의 대학입학시험)를 앞둔 고3 교실을 방문해보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실제 중국 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대륙의 큰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자 이재현(중국어과)

### 방문한 명덕외고 학생들의 소감

**서인덕(3학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송준석(2학년)**  
학교일에 불타오르는 중국 친구들을 보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재현(2학년)**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꼭 형수이중학교 친구들도 우리학교를 방문해 더 깊은 문화적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광희(2학년)**  
중국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에 참가하는 등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을 가져 뜻 깊은 여행이 되었다.

**이지호(2학년)**  
현재의 중국이 미국이 견제할 만한 나라인 것을 몸소 느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었다.

**김병준(2학년)**  
학교에 앉아 수업하는 대신 몸소 체험하는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왕자이(王子怡)(1학년)**  
중국학교만큼 한국학교도 좋아한다. 다만 중국 학생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공부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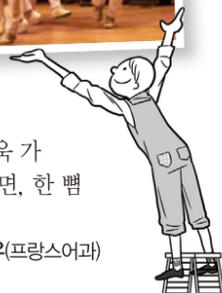
**윤지영(1학년), 구서희(1학년)**  
중국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중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동아리 발표회



## 우리의 끼를 마음껏 펼치는 자유의 시간...

명덕외고에서는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명덕인들의 재능과 끼를 한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일 년에 한 번, “동아리 발표회”라는 축제를 통해 주어진다. 광고 제작에서부터 락밴드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이룬 동아리가 매 시간 갖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는 것이다. 2014년 9월, 양천문화회관은 명덕인의 뜨거운 에너지와 열기로 들썩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미녀 MC들의 재치 있는 진행 속에서 명덕외고 학생들은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사물놀이 동아리인 패와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우리, 광고 패러디 영상 제작 동아리인 AD here, 난타 동아리인 비트 등 모든 공연 동아리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2014년 동아리 발표회 역시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동아리 발표회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부터 진행까지 이끌어 나가기에 더욱 가치있는 경험이 될 수 있고,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배움이 된다. 동아리의 행사가 끝나면, 한 뼘 더 성장해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기자 박선우(프랑스어과)

# 동문파워

양 지 민 변호사(영불과 10기)

## 명덕외고는 나에게 ‘첫 단추’다



명덕외고를 졸업한 선배들은 국제변호사, KBS 아나운서, 외국계 회사 CEO로 정치,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다. 우리 COMP는 명덕외고 10기 영불과 양지민 선배를 통해서 명덕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Q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세요!**

**A** 현재 국제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다루는 팀에 속해있어요.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슈가 있을 때 소송이 있으면 직접 소송도 하고 있고요.

**Q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게 가장 보람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의뢰인들이 고마워하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양쪽 당사자들이 내용을 바꾸면서 최종본이 나와서 마지막에 계약 체결을 하고 사인을 할 때도 보람을 느껴요.

**Q 변호사를 꿈꾸는 명덕인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A** 학부 때는 로스쿨에 너무 엄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전문분야가 생겨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리부터 법을 공부하기보다는 봉사활동 등 사회적 활동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해요. 인성적으로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현실이나 주변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소신 대로 밀고나가는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는 것 같아요.

**Q 선배님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 낮에 학교에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Q 명덕외고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신 것은 물론이고 인성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시고요. 그런 선생님들 덕분에 잘 되는 명덕외고 출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명덕외고 선배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취가 후배들의 꿈의 설계에 환한 빛을 밝힌다. 선배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기자 홍수아, 정다빈(프랑스어과)



## 제3회 총동문회를 기대하시라!

2013년 3월부터 총동문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에 총동문회 그룹이 개설되었고 그해 12월 14일 대망의 '제 1회 명덕외고 총동문회'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22일 '제 2회 총동문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문들이 비교적 젊고 SNS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총동문회 페이스북은 동문회 운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계, 라이딩, 볼링 클럽 등 여러 분야의 동호회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구인 광고를 하는 등의 모습은 동문들에게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문들끼리 지역마다 모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타지 생활에 지친 동문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기도 한다. 또한 동문들은 꾸준히 학교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입시 스트레스와 진로를 걱정하는 후배들을 위해 직접 학과와 직업 분야의 강연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고, 올해 수능이 끝난 후 3학년들을 위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명덕외고 총동문회는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재학생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주며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자극받아 더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동문회 교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이다.

기자 권소진(러시아어과)



## 명덕외고의 체육대회



명덕외고의 체육대회는 동아리 발표회와 함께 연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영어과, 중국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그리고 러.일 연합의 1, 2학년 학생들이 5개의 팀을 이루어서 경쟁한다. 종목은 매년 바뀌지만 보통 남학생 경기로는 축구, 족구, 닭싸움, 농구 등이 있고 여학생 경기로는 피구, 발야구, 패네티키 등이 있다. 이런 주 종목 외에 부수적인 경기들과 개인 미니게임도 많이 열리며 과별 치어리딩 역시 대단한 볼거리이다. 게다가 올해는 '체육대회 학생 자치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학생중심의 자율적인 행사로 발전되었다. 이 체육대회 자치 위원회에서 대회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그들은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체육대회에 매우 열정적으로 임하고 승부욕이 대단하다. 보통 체육대회 2~3주 전부터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때 각과의 2학년 선배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1학년을 이끌면서 과의 단합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선후배간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진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명덕외고에서는 체육대회 때 자신의 과가 대표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는다. '파티'라고 불리는 이 옷은 인터넷에서 주문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 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체육대회의 재미있는 문화는 각 과가 '응원가'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다. 그 중에는 오래전부터 과 선배들이 만들

어서 불러온 노래가 있고, 매년 새롭게 탄생하는 창의적인 노래도 있다. 대회 당일에는 운동장 전체에 각 과의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응원가는 팀이 단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응원가에는 각 과가 배우는 외국어가 들어간다. 그 언어를 자랑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단결력을 배로 해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이다.

체육대회는 꼭 우승을 못하더라도 이 날은 정말 선생님 과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다. 이 날은 명덕인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값비싼 추억이 된다. 2015년 체육대회는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응원을 만드는 주체적인 행사가 우리를 벌써부터 설레게 한다.

기자 이재하(프랑스어과)



## 명덕외고의 방과 후 프로그램

### 뱅상 뒤보(Vincent Dubeau) 프랑스어 선생님

뱅상 선생님은 프랑스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요, 프랑스어 공인인증 시험인 DELF(델프) B1 및 B2 과정 방과 후 수업을 맡고 계신다. 특히 뱅상 선생님은, "아무리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어휘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회화와 풍부한 어휘력 향상에 수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라 프랑스어를 못하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오신지 올해로 23년째인 뱅상 선생님은 수업 중간에 때때로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도 하면서 학생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Bonjour! 내 이름은 뱅상 뒤보(Vincent Dubeau)이고 올해 한국나이로 50이예요. (66년생인데 한국나이로 오십 맞지?) 한국에는 정확히 1993년 8월 17일 5시 40분에 도착했구요, 비 오던 날이라 아직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네요. (웃음) 이번 학기에는 2학년 프랑스어 과 학생들을 위해 DELF B1, B2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Q 프랑스어를 가르치시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은 있으신지?

A 음... 그건 누굴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훌륭한 학생들을 맡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지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정말 악몽이예요. 다행히 지금 2학년 프랑스어과, 영어과 학생들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Q 프랑스어를 비롯한 전공어를 공부할 때 갖추어야 하는 태도나 자세가 있다면?

A 무무엇보다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말하세요.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자 문중혁(독일어과), 이재하(프랑스어과)



### 명덕외고's 알재버니 방과 후 프로그램



영화논술  
NIE 프리젠테이션반  
세계문학 특수과제 연구  
사진으로 세상읽기  
경제학의 이해(미시)  
인문 지리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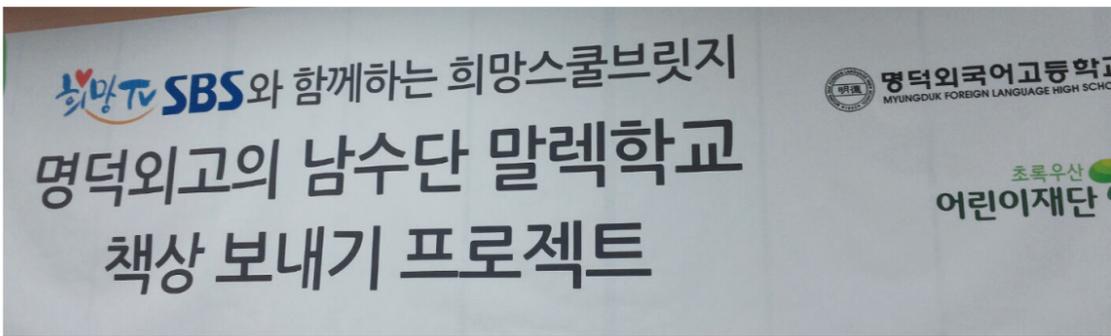
TEPS Upgrade 1  
1등급을 향한 수학 수업  
新 HSK 4급 시작반  
DELFB1~B2  
ZD

건강스포츠  
요가스트레칭



네이버 열린연단 스티디클럽  
19세기 러시아 문학사  
프랑스문학 심화  
중국어 토론반  
English Drama Club  
미드로 원어민처럼 듣고 말하기

## 명덕외고 나눔 바자회 with SBS & 초록우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다.

기자 최서연, 정다빈(불어과)

지난 4월 16일, 명덕외고에서는 '남수단 말렉학교 책상 보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눔 바자회가 열렸다. 이는 일부 불어과 학생들이 작년에 주기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 한사랑 마을로 장애우 돕기 단체봉사를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행사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희망 TV SBS와 함께 진행이 되었으며, 바자회 수익금을 초록우산이 수단에 세운 학교로 전달하는 행사였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사전에 학생들이 제출했던 책, 의류, 액세서리, 학용품 등의 품질 좋은 물건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는데 석식 전후로 진행되어 명덕외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A** 이번 바자회에 많은 물건이 들어왔고 또 바자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물건을 사거나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며 명덕외고의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착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명덕외고 학생들이 앞으로도 봉사를 꾸준히 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남수단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남수단 아이들이 저희의 작은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고 자신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많은 친구들이 물건을 기부해주었으며 자원봉사 하려는 학생이 많았고,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바자회는 명덕외고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돋보였다. 또한 이번 행사가 수단에 있는 말렉이라는 학교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장을 연 계기가 되었다는



COMP에서는 바자회에 참여한 김건호 학생을 인터뷰했다.

**Q** 바자회를 끝낸 후 소감을 말해주세요.

## 중학생진로탐색교실



중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도와 주기 위해 강사·양친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제 1회 중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교실'을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 3회 진로탐색교실'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17시부터 19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약 120여 명의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재학생 선배와의 만남 및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 전형 및 올바른 대입 준비 전략, 그리고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중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으로써 외교 입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중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교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문중혁(중국어과), 허영현(독일어과)



### 궁금해요?

**Q** 입학 전에 전공어를 꼭 배우고 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공어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배우고 와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Q** 지원할 때 과목은 전과목이 모두 들어가나요?

**A** 모든 외교에서는 중학교 때의 영어 내신만이 입시에 반영됩니다. 또한 TEPS, TOEFL 등의 외부 시험은 자기소개서에 기재 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영어 내신 등급이 학기별로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희망하는 과의 등급 컷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교는 수업을 전부 영어로만 수업하나요?

**A** 아닙니다! 외국어 과목을 중점으로 하여 시간표가 짜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나 전공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원어인 시간일 뿐 그 외의 수업은 모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자 권소진(러시아어과)

## 면접기출 Q&A

**Q**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A** 자기소개서 영역이 2015학년도부터 자기 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자기 주도 학습 영역에는 중학생 시절의 공부 방법과 교내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에는 공부 계획이나 슬럼프였을 때 극복 방법 등을, 교내 활동에는 CA 활동 등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내 대회 관련 내용은 안됩니다.) 올해부터 독서 영역이 사라져서 자기 주도 학습 영역에 녹여서 작성해야 하는데, 독서는 자기계발서 1권, 진로 관련 도서 1권을 쓰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추상적인 표현을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보다는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실천한 점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입학하기 전에 언어를 배우고 와야 하나요?

**A** 일본어, 중국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배워 오는 편입니다. 프랑스어과랑 독일어과는 입학 후 알파벳부터 가르쳐주시긴 하지만 배우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배우고 온 학생들이 거의 없고 선생님이 알파벳부터 천천히 가르쳐주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알파벳이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셔서 안 배우고 와도 됩니다. 단, 일본어과는 입학 전 방학 숙제로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외워오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Q** 텡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 물론 해오면 좋습니다. 해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영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채로 텡스 준비를 하신다면 내신 관리, 수능 준비 둘 다 어려울 거예요. 무작정 텡스를 준비하지 마시고 본인의 영어 실력을 한 번 점검해보시고 준비하세요.

**Q** 입시 전문 학원(자기소개서, 면접 학원)을 다닌다면 유리할까요?

**A** 실제로 재학생들 중 입시 전문 학원을 다닌 학생들보다 안 다닌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입시 전문 학원에서 준비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 본인이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직접 준비하면서 얻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권소진(러시아어과)



## 예비 명덕인을 위한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과 1학년 7반 최서연입니다.  
원하던 명덕외고에 입학하여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니 영광스럽습니다.

### ● 지원동기

언론계 쪽에 유명한 선배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명덕외고는 어릴적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다양하고 심도있는 외국어 방과후 수업 등은 저의 경험과 실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에 명덕외고에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 준비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업에 대한 집중보다는 각종 교내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꿈인 저는 3년간의 방송부 활동이나 교내 영어말하기대회, 글쓰기 대회, 달리기 대회 등 많은 교내대회에 참가하여 중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특목고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 입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학업에 매진하였고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여 암기하였습니다. 교과 외적으로는 장애우 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자기계발계획서를 쓰기 위한 준비작업을 틈나는 대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교내활동과 학업에 대한 열정은 외고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고 자신의 중학 생활을 토대로 진실되게 써야하는 자기소개서에 좋은 사례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 ● 입학 후 소감

한 마디로 입학 전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덕외고의 매력 세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열정적인 학교 분위기입니다. 선생님들은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챙겨 주시고 항상 질 좋은 수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십니다.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지원에 힘입어 수업과 각종 교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발전적인 학교생활을 합니다.

둘째,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훌륭합니다. 우수한 실력과 멋진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서로 좋은 자극을 줍니다. 또한 경쟁심과 이기심보다는 배려와 협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자연히 행복한 학교생활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각자 취향이나 재능에 맞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COMP)는 학교홍보책자를 만드는 등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이 많아 더욱 자긍심을 느낍니다.



## 명덕외고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주는 합격의 Tip!



### ● 내신준비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지 말고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전체 4%안에만 들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보면 느슨해져서 자칫 문제를 놓치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원하는 등급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필고사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나 듣기평가도 방심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 면접

대부분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긴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에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사 그밖에 질문이 나온다고 해도 정답은 없으니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아리 소개

내 꿈에 날개를 달다!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학생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 안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나고, 숨겨진 끼를 발견할 수 있다.  
명덕외고 60여 개의 동아리 중 일부를 만나보자.

### 학술동아리

- 영어 프리젠테이션반
- 모의유엔
- TED 연구반
- Miyabi (일어일본)
- I.D.K (독일문화속으로)
- S.A.F.E (경제금융)
- 가우리 (역사 왜곡 및 시사 탐구)
- 그루터기(도서부)
- GLOBAL (국제교류)
- 엠네스티 (인권보호활동)
- SMUF (경제, 경영)

### 공연동아리

- 베짱이 (통기타)
- BEAT (난타)
- CINEPHILE (영화제작)
- DOHC (댄스)
- Geroy (락밴드)
- M People (밴드)
- MBS (방송반)
- WITH (보컬하모니)
- 우리 (세미클래식)
- AD here (영상/영화/방송)
- 패 (사물놀이)

### 봉사동아리

- COMP (명덕외고 홍보 동아리)
- Dienen (초등학교영어봉사)
- 나눔 (초등학교봉사)



기자 김동완(영문과)



### 폼프(COMP) 3기 2학년

한주원(중국어), 강채연(중국어), 김동완(중국어), 문종혁(중국어), 허영현(독일어), 김근혜(프랑스어), 김무경(프랑스어), 정다빈(프랑스어), 최서연(프랑스어), 이재해(프랑스어), 정희진(러시아어), 최은비(러시아어), 최모빈(러시아어)



### 동아리 짱~! 문종혁(2학년 중국어)

● 명덕외고 학교홍보동아리 폼프(COMP)는 서울지역 중학교에 배부되는 학교 신문을 만들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새로이 느끼게 되었으며, 학교를 널리 알린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 신문 편집 후기

- 우리학교 기사를 쓸 때마다 명덕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우리 신문을 읽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COMP 파이팅!! ♡
- 드디어 폼프 신문 나왔다~! 동기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후배들은 올해 더 좋은 신문 만들기 바랄게. 명덕의 여신 최서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
- 인터뷰 준비부터 기사 쓰는 것까지 내 스스로가 경험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 3년동안 폼프로 활동해서 정말 행복했고, 좋은 추억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학교를 홍보하는게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동아리 멤버와 최서희쌤 모두 다 사랑해요. ♡. ♡
- '명덕누리'는 독일어과 3학년 고석규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 폼프(COMP) 2기 3학년

두주영(영독), 박신영(영독) 고석규(독일어), 범기혁(독일어) 이규환(프랑스어), 박선우(프랑스어) 홍수아(프랑스어), 권소진(러시아어)



## 2015년 9월, 명덕외고의 기숙사 완공!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 속에 2013년 12월에 시작된 기숙사 신축 공사가 올해 9월 30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완공될 기숙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규모로 건물 내부에는 전교생을 수용할 기숙사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면학실, 동아리실, 골프 연습장, 편의점 등도 들어서게 된다. 기숙사의 주요 시설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먼저 명덕외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 기숙사실의 경우 4인 1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방당 2개의 화장실과 침대 4개가 배치된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면학실은 전교생 1인 1 독서대가 배정되고 학생들은 동아리실에서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각종 운동기구가 비치된 체력 단련실에서 공부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입주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기숙사에서의 즐거운 학교생활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기자 두주영(영독과)



**Q** 기숙사는 4인 1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의 위치와 룸메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A**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어요. 반 번호 순서대로 하자는 의견도 여러 의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방의 위치와 룸메이트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바꾼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겁니다.

**A** 아니요, 이용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언제든지 타당한 사유를 대고 허락을 받으면 동아리실과 다목적 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학교 내에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연동아리 같은 경우 학교 외부 연습실을 사용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동아리실에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외부에서 진행되었던 동아리 발표회가 기숙사 건물 내의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해질 것 같네요.

**Q** 완공될 기숙사 건물에는 동아리실과 다목적 교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용가능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Q** 기숙사 건물 내의 면학실은 몇 시까지 이용가능한가요? 또 학생 한 명당 책상 한 개를 배정받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면학실은 지상 1층과 4층에 위치해 있는데 1층은 3학년 학생들이, 4층은 1, 2학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각각의 책상에는 독서실처럼 번호가 적혀 있고 학생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번호의 책상을 이용하는 거죠. 자리에 따른 불만도 예상되다 보니 면학실 자리는 주기적으로 교체될 거예요. 이용가능 시간은 아직 논의중에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기숙사에서 생활할 학생들의 경우 귀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A** 확정은 아니지만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시간 전까지는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주말을 보내며 일주일의 정리하고, 다시 힘찬 에너지를 얻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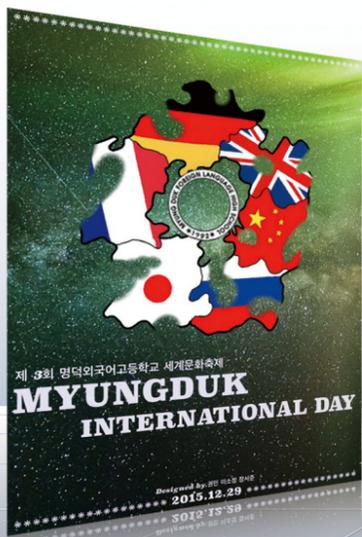
**Q**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는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A** 의무입니다.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명덕에서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명덕외고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갖춘 외국어고등학교로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 줄 것입니다.



**Q**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개인별로 주어지는 넓은 면적공간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다목적실을 이용하여 토론, 토의 등을 하고 여러 자료가 풍부한 멀티실과 북카페를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구가 구비된 체력단련실과 골프 연습실에서 부족한 운동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하루를 보내고 기숙사 내 프로그램으로 여가 시간도 알차게 보낸다면 몸과 마음이 한 뼘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세계문화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언제?** 2015년 12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디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어떻게?**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즐기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